

돌봄공동체 리더들이 인식하는 가족친화마을환경 개념에 대한 사례연구

- 제주지역 이주민 돌봄공동체 리더를 중심으로 -

A Case Study on the Concept of Family-Friendly Neighborhoods Recognized
by Child Care Community Leaders with a Focus on the Leaders
of the Community in Jeju, South Korea

대전대학교 아동교육상담학과
교수 차성란

Dept. of Child Education and Counseling, Daejeon Univ.
Professor Cha, Sung Lan

〈목 차〉

- | | |
|----------------|----------------|
| I. 서론 | IV. 연구 결과 및 해석 |
| II. 이론적 배경 | V. 결론 및 제한점 |
| III. 연구내용 및 방법 | 참고문헌 |

〈Abstract〉

This study aims to identify the concept of a family-friendly neighborhood environment and to present the findings to influence the goals of and directions for future policy. This qualitative research study was conducted based on interviews with six leaders in the child-care community residing in Jeju and Seogwipo, two cities in South Korea. First, the findings demonstrated that the subjects recognized the concept of family-friendly neighborhood environments as “environments in which communication is possible with all neighbors, neighbors take care of children, and all families enjoy neighborhood life.” Second, family-friendly neighborhood environments were characterized as being safe, nature-friendly, and accessible. Third, participants identified family leisure cultural facilities and multipurpose facilities as the spaces that characterize family-friendly neighborhood environments. Lastly, the model of family-friendly neighborhoods needs to be composed of the following three factors: residence, leisure, and economy.

Key Words : 돌봄공동체(care community), 가족친화마을환경(family friendly neighbourhood environment), 가족친화사회환경(family friendly social environment)

* 주저자, 교신저자: 차성란(teatime5501@gmail.com)

I. 서론

2007년의 가족친화사회환경 조성의 촉진에 관한 법(이하 가족친화법) 제정과 그에 이어진 가족친화사회환경조성 정책(이하 가족친화정책)은 가족기능으로서의 돌봄, 특히 자녀돌봄의 부담에 따라 발생하는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목적에서 출발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관련법에 의하면 가족친화사회환경은 ‘일과 가정생활을 조화롭게 병행할 수 있고, 아동양육 및 가족부양 등에 대한 책임을 사회적으로 분담할 수 있는 제반 환경’으로 정의되어 있다. 이를 위한 세부적인 사업은 일과 가정생활의 양립과 관련하여 가족친화직장환경 조성, 돌봄의 사회적 분담과 관련하여 가족친화마을환경 조성의 두 영역의 사업이 중심이 되고 있다. 가족친화직장환경 조성 사업 영역에서는 2008년도에 3개의 대기업과 6개 공공기관으로 시작된 가족친화기업 인증 실적이 2019년 기준 3,833개 기업 및 기관으로 적어도 양적 실적이 성과를 보여지고 있다.

이에 비해 가족친화마을환경 조성 사업은 가족친화직장환경 영역에 비해 사업이 부진한 상태임이 이미 여러 연구들에서 지적되고 있다(차성란, 2010, 장임숙·권진아, 2015; 김소영 외, 2017). 정가원 외(2019)는 실태조사 중심의 제한적 사업추진, 연구자, 정책담당자, 사회구성원에 따라 상이하게 인지되는 가족친화지역사회 개념, 구체적 정책목표 및 추진방식의 부재 등을 그 이유로 들고 있다. 김혜영 외(2009)은 ‘마을’이라는 용어의 정확한 개념 및 범주, 가족친화환경조성의 책임주체에 대한 규정, 구체적 정책방향과 사업안 미비 등을 이유로 들고 있다. 진미정(2018)은 지역사회의 개념, 노신애와 진미정(2013)은 지역사회의 지리적 범위의 문제를 지적하고 있다.

관련 선행연구들에서 가족친화마을환경조성 정책이 상대적으로 부진한 다양한 이유들을 분석, 제시하고 있지만 공통적으로 제시되는 문제점은 가족친화마을환경 개념이 명확하게 규정되고 있지 못하다는

점이다. 이승지 외(2009)의 가족친화마을 모델 개발 연구에서는 ‘아이키우기 좋고 어른들이 살고 싶은 마을’이라는 포괄적 개념정의, 역시 가족친화지역사회 모형 개발을 다룬 홍승아, 김혜영과 류연규(2007)의 연구에서는 가족 책임과 가족생활을 지원하는 환경, 제 2차 가족친화사회환경 조성 실태조사(이영범 외, 2012)에서는 돌봄과 여가생활을 지원하는 시설 인프라를 갖춘 환경 등 연구자들이 개념정의하고 있는 전체적 스펙트럼이 매우 넓다.

정책적으로 추진되는 사업에서 관련 용어의 개념은 정책의 목표, 사업추진 과정 및 성과의 기준 지표가 된다. 가족친화의 정확한 개념 부재는 정책추진 방향과 정책추진의 피드백 자료가 되는 실태 측정지표의 혼란으로 이어질 수 있다. 무엇이 가족친화이고 가족친화사회, 가족친화마을인가에 대한 합의가 없는 상태이다 보니 무엇을 측정하여, 정책에 반영할 것인가가 문제되는 것이다. 관련 조사나 연구들은 가족친화사회환경 실태, 가족친화성, 가족친화문화 등 객관화된 용어가 아닌 연구자의 주관적 기준과 선택에 의해 각기 다른 용어, 다른 측정 지표, 다른 측정 문항들을 사용하고 있다. 가족친화법 제 8조에 의거 매 3년 마다 시행하고 있는 가족친화사회환경 조성 실태조사는 가족친화정책 추진 방향을 가늠해 볼 수 있는 자료이다. 2009년 시작된 제 1차 조사에서부터 제 4차에 이르기까지 가족친화법에 제시된 가족친화마을환경 개념을 각기 다르게 규정하고 있다. 정부 정책으로서 아직까지 합의된 가족친화마을환경 개념이 확립되지 않다보니 조사를 위한 지표들도 계속 수정, 보완하는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다. 제 4차 조사에서는 일방적 정책 수혜자가 아닌 정책 주체로서 지역사회에 거주하는 가족구성원이 인식하는 가족친화지역사회 환경의 개념과 기준 요소를 분석하여 그 결과를 바탕으로 한 정책 방향성을 도출하고자 한다고 하고 있으나(정가원 외, 2019) 구조화된 설문지가 갖는 한계가 있다. 가족구성원이 인식하는 가족친화마을환경의 개념을 심층적으로 조사함으로써 가족친화정책의 구체적 목표, 추진전략을 체계화

할 필요가 있다. 가족친화마을환경 조성 정책의 추진 과정에서 거주자인 가족구성원이 인식하는 가족친화마을의 기준 요소, 가족친화마을환경의 목표를 파악하는 것은 가장 기본적인 지침이 될 것이다.

한편 가족친화적인 마을환경이라 평가되고 있는 사례들을 살펴보면, 공동육아와 같은 자녀돌봄공동체로부터 시작하는 경우를 흔히 볼 수 있다. 가족친화마을환경의 요소를 물리적 시설 인프라 및 사회적 자본이라 본다면, 이중 사회적 자본 형성의 중요한 통로가 되고 있는 것이 자녀돌봄 공동체이기 때문이다. 사회적 자본은 주민들의 참여에 의해 형성되는 것이며, 자녀돌봄 공동체는 자발적 참여가 비교적 용이한 특징을 지니고 있다. 지역사회 환경조성 정책 사업의 효과적, 효율적 추진을 위해 돌봄공동체에 참여하는 리더들이 갖고 있는 생각을 파악하는 것은 성공 가능한 보다 많은 사례를 만들기 위한 전략이 될 수 있다.

돌봄공동체는 민간의 자발적 참여로부터 시작된 유형에서부터 여성가족부 산하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가족품앗이나 보건복지부의 다함께돌봄 사업과 같은 관주도의 사업에 이르기까지 참여자의 자발성, 활동의 주체성, 민주주의적 운영 수준 등에 있어 다양하다. 제주지역에서는 2019년부터 주민들의 자구성(自主性)에 기반한 돌봄공동체를 형성, 발전시키고자 하는 사업목표를 가지고 돌봄공동체 공모사업을 진행하였다. 자주적 돌봄공동체는 참여자들의 활동에 대한 관여도가 높은 만큼 활동과정에서의 문제점이나 요구를 보다 정확히 파악할 수 있는 대상이 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제주지역 돌봄공동체 공모사업 참여팀의 리더들을 대상으로 이들이 인식하고 있는 가족친화마을환경의 개념 및 가족친화마을환경이 갖추어야 할 요소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공동체활동을 통해 사회적 자본 형성의 선도적 역할을 하고 있는 이들의 가족친화마을환경 개념 인식을 통해, 가족친화마을환경조성 정책의 추진 방향, 구체적 사업 목표를 파악할 수 있을 것이며, 특히 자녀양육기에 있는

가족들 집단에 대한 정책의 참고 자료가 될 수 있을 것이다.

II. 이론적 배경

가족친화마을환경의 개념 정의의 부분에서 정책 사업으로서 가족친화마을환경의 목표를 파악하며, 해당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수단적 조건들로서 가족친화마을환경의 기준 요소를 살펴보고자 한다.

1. 가족친화마을환경의 개념 정의

가족친화마을환경 개념의 모호성은 관련법에서 정책의 목적과 추진전략의 구체화 수준이 낮아 부분적 이유를 찾아볼 수 있다. 가족친화법 제 2조에 의하면 가족친화사회환경은 ‘일과 가정생활을 조화롭게 병행할 수 있고, 아동양육 및 가족부양에 대한 책임을 사회적으로 분담할 수 있는 환경’으로 정의된다. 가족친화사회환경의 영역은 직장과 마을로 구분되어 있으며, 가족친화직장환경은 ‘가족친화제도가 운영되고 있는’, 마을 환경은 ‘가족돌봄을 지역사회 차원에서 분담할 수 있으며, 다양한 가족구성원의 필요로 하는 시설과 공간을 갖추고 있는’ 것으로 개념화되어 있다. 두 영역 개념정의에서 차이점은 직장 영역에서의 일 가정 양립은 가족친화제도 운영이라는 좀 더 구체적 실행 방법이 제시되어 있으나, 마을 영역에서 돌봄의 사회적 분담은 추진방향이나 구체적 추진 방법에 대한 설명이 되어 있지 않다는 것이다. 다만 가족친화마을환경은 가족원이 필요로 하는 시설과 공간 충족이라는 물리적 환경 조성 목표가 설정되어 있다. 가족친화법을 기준으로 볼 때, 가족친화사회환경 조성 정책은 가족친화제도 운영, 마을의 물리적 환경 조성 방법을 통해 정책 목표를 달성하고자 하는 의지가 표명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돌봄의 사회적 분담을 위한 구체적 실행전략은 부재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가족친화마을환경 개념이 명확하게 인식되지 못하는 데에는 정책에서의 용어 사용 혼란도 부분적 이유가 된다. 가족친화법에는 가족친화지역사회 환경과 마을환경이 언급되고 있다. 마을환경은 개념 정의가 되어 있으나, 지역사회 환경에 대한 개념은 제시되고 있지 않다. 지역사회와 마을 용어의 명확한 개념과 차이에 대해 파악하기 어려운 상태이다.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에 의하면 지역사회는 ‘한 지역의 일정한 범위 안에서 지연(地緣)에 따라 자연스럽게 이루어진 생활공동체’로 정의되고 있으며, 마을은 ‘주로 시골에서, 여러 집이 모여 사는 곳’으로 정의되고 있다(<https://stdict.korean.go.kr>). 관련법에서 사업단위로 개념정의가 되어 있는 마을환경에서 마을은 ‘모여 사는 곳’, 즉 지리적 환경의 개념으로 정의되고 있고, 여기에 가족친화의 용어가 덧붙여짐으로써 그 지리적 장소에 가족친화 개념이 포함하고 있는 특성, 예를 들면 이웃들과의 유대감, 공동체성, 물리적 시설 및 프로그램 등이 제공되는 곳으로 이해될 수 있을 것이다.

가족친화 수준을 파악하기 위한 지표도 가족친화 직장환경 영역의 지표는 가족친화지수로 명명되고 있으며, 지역사회는 가족친화사회환경이라는 이름으로 시행되고 있다. 관련법에서의 가족친화사회환경은 직장 영역과 지역사회 영역 모두를 포함하고 있다. 가족친화사회환경 실태조사에는 직장과 지역사회 모두를 포함하는 것이 되어야 할 것이다. 각각의 명칭을 사용함으로써 직장 영역과 지역사회 영역 사이의 상호작용적 관계가 간과될 수 있다. 직장에서의 가족친화적 환경은 일 가정 양립을 가능케 함으로써 지역사회에서 육아와 가사, 여가의 가족생활, 이웃들과의 마을생활 기회를 확대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가족친화는 직장에서의 일 가정 양립을 위한 제도 운영이 전부인 것으로 이해하는 개념적 오류를 발생시킬 가능성도 있다.

지금까지의 연구에서 다루어진 가족친화지역사회 환경 또는 가족친화마을환경의 개념들을 살펴보면 물리적 시설 인프라 중심의 개념 정의에서부터 일과

가정의 양립 지원, 가족기능수행 지원, 가족의 행복한 삶에 이르기까지 포괄 범위가 넓은 것을 알 수 있다. 제 2차 가족친화 사회환경 실태조사에서는 가족친화 인프라 중심의 개념정의로서 “근로 가능한 가족구성원이 외부 경제활동을 수행하는 동안 돌봄이 필요한 가족구성원을 위한 시설”과 “근로가능한 가족구성원이 외부 경제활동을 수행하고 귀가한 이후 나머지 가족구성원들과 함께 여가활동을 할 수 있는 시설”(이영범 외, 2012)이라 하여, 돌봄과 여가에 초점을 둔 가족친화 인프라 관점의 개념 정의를 하였다. 진미정은 가족친화성이라는 용어를 빌어 가족친화지역사회는 아동양육과 가족부양이라는 가족기능수행에 도움이 되어 일과 가정생활의 병행을 지원하는 지역사회로 정의하였다(진미정, 2018). 제 2차에 앞서 실시된 제 1차 실태조사(김혜영 외, 2009)에서는 지역사회 철학, 지원서비스 인프라, 지역사회 네트워크, 지역환경 특성 등 가족친화지역사회의 기본특성과 요건을 중심으로 정의하였다. 가족친화지역사회 모형 개발 연구(홍승아 외, 2007)에서는 가족친화지역사회를 “가족책임을 수행하고 가족생활이 이루어지는 공간 또는 공동체가 가족책임과 가족생활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지역사회”로 정의, 가족기능수행을 포괄적으로 지원하는 가족친화지역사회의 개념을 제시하였다. 제 3, 4차 실태조사에서는 가족친화 사회환경을 “가족돌봄을 사회적으로 분담하고, 가족의 여가 및 문화생활 지원, 안전한 환경 조성 등을 통해 다양한 가족이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는 환경”이라고 정의(최인희 외, 2016; 최인희 외 2018), 가족기능수행을 넘어 행복한 삶의 방식이 수용될 수 있는 지역사회 환경으로까지 확대된 개념정의를 하였다.

한편 김소영 외(2017)는 새로운 가족 트렌드를 반영하여 가족 안에서도 개인의 자유로운 선택적 삶이 수용될 수 있으며, 가변적으로 구성되는 가족을 대상에 포함시키는 유연한 가족친화사회환경 조성 정책의 필요성을 이야기하였다. 정가원 외(2019)의 연구에서는 일가정 양립이나 돌봄의 사회적 분담이 가족

의 문제가 아니라 개인의 문제로 다루어지고 있음을 지적하면서 가족친화의 개념에 “가족 내에서 수행하는 기능을 평등한 방식으로 분담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환경”도 포함할 것을 주장하였다. 가족친화사회환경 조성 정책이 자녀돌봄에 치중됨으로써 생애주기단계에 대한 고려가 되지 못한다거나 1인 가구가 배제되는 문제(김소영 외, 2017; 정가원 외, 2019)도 지적되고 있다.

이러한 논의들은 가족친화정책이 사회정책이 아닌 가족정책으로서 위치를 정립함으로써 가족원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해야 함을 말해주는 것이라 하겠다. 돌봄의 사회적 분담을 통한 저출산 문제 해결과 같은 사회적 접근이 아니라 가족관점 정책, 가족중심정책으로서의 가족친화사회환경 개념화가 필요할 것이다. 이송지 외(2009)는 가족친화마을을 ‘가족의 삶을 지원하는 시스템’이 작동되어야 하며 “아이들을 마음 놓고 키울 수 있고 어른들이 오래 살고 싶은 마을”로 개념 정의하였다. ‘살고 싶은’의 개념은 지나치게 광범위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가족들이 각기 원하는 다양한 삶의 방식과 요구가 수용되는’의 개념으로 이해될 수도 있을 것이다. 가족친화마을환경은 1차적으로 가족의 기능수행이 지지되어야 하며, 나아가 가족이 바라는 다양한 삶의 방식이 지원되는 환경이 되어야 할 것이다. 가족친화마을환경의 지원 영역은 건강한 가정이 가족정책의 목표라는 점을 고려할 때, 가정의 기본적인 물적 토대, 민주적이고 평등한 가족관계, 전생애주기단계의 모든 가족과 다양한 형태의 가족들에 의한 역할수행, 가족의 여가생활, 지역사회와의 소통이 지지되는 환경으로 구분할 수 있을 것이다. 결국 가족친화마을환경은 가족의 역할과 기능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다양한 삶의 방식과 요구가 수용되며, 가족 안에서의 평등이나 지역사회와의 소통도 유지하는 건강한 삶의 방식을 지원하는 환경이 되어야 할 것이다.

2. 가족친화마을환경의 구성 영역 및 기준 요소

가족친화마을환경의 개념은 가족친화마을환경이 지향하는 궁극적 목표 또는 마을의 기능 차원으로 이해될 수 있다. 가족친화마을환경 개념에서 드러나는 목표를 달성되기 위한 수단으로서 선행연구에 나타난 가족친화마을환경의 구성 영역은 행정의 지원 체계, 시설 및 서비스 인프라, 주민의 사회자본으로 요약될 수 있다.

홍승아 외(2007)는 지역사회의 철학, 서비스 인프라, 시민의 참여와 네트워크를 가족친화적 지역사회의 구성영역이며, 서비스 인프라로서 시설과 프로그램의 서비스 제공은 안전성, 편리성, 접근성, 자연친화성의 원칙들이 준수될 필요가 있음을 밝히고 있다. 제 1차 가족친화사회환경 조성 실태조사(김혜영 외, 2009)에서는 행정 인프라, 서비스 인프라, 지역의 사회자본 및 네트워크, 지역환경의 네 개 범주를 구분, 행정인프라에는 법제, 행정체계, 재정지출 영역을 포함시켰으며, 서비스 인프라에는 돌봄서비스 인프라와 여가·문화시설을, 지역사회 사회자본 및 네트워크에는 지역사회 참여, 자조, 지역사회에 대한 관심과 신뢰도, 지역환경에는 자연친화성, 안전성을 포함시켰다. 1차 조사(김혜영 외, 2009)를 기준으로 볼 때, 2차 조사는 시설 인프라 중심으로 조사 문항이 구성되어 관련 시설 이용률이나 제공률 대신 시설수를 조사하였다(이영범 외, 2012). 3차 조사(최인희 외, 2016)에서는 지역사회 참여와 사회자본 주관 지표와 같은 사회자본 항목이 제외되었다. 4차 조사(최인희 외, 2018)에서는 가족친화 인프라가 잘 구축된 몇 개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공동체성, 마을공동체 활동 등의 항목을 조사하였으나 평가지표 영역에는 포함시키지 않았다.

가족친화마을환경이 조성, 유지되기 위해서는 행정의 지원체계를 바탕으로 시설 및 프로그램 등의 서비스 인프라, 거주자가 만들어내는 사회 자본이 필요한 것으로 정리할 수 있다. 가족친화마을은 접근

성이 보장되는 거주단위를 중심으로 조성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해당 지역의 행정 지원체계가 결정적인 영향력을 지닌다. 지자체 단위에서 시행되고 있는 서울시의 돌봄공동체 지원 사업(조막래·김한별, 2015)이나 제주의 수놓음음악 지원 사업(손태주·차성란, 2019)의 사례에서 행정의 역할과 영향력을 가늠해볼 수 있다.

가족친화마을환경의 기준 요소는 제 1차, 2차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 실태조사에서 안전성과 자연친화성을 포함하고 있으며, 3차, 4차에서는 자연친화성을 쾌적성으로 확대된 개념으로 측정하였다. 안전성은 교통사고 및 범죄로부터의 안전성을 하위 항목으로 포함시키고 있다. 한편 60년대 말 건축학 분야에서 근린주구 계획(neighborhood planning)을 주장, 실행하던 학자들은 근린주구를 ‘마을’이라는 명칭으로 사용하곤 했다. 근린주구의 개념에 대해 사회학자들은 진정한 근린주구란 그 안에 거주하는 주민들이 활동, 경험, 가치관 등을 공유할 수 있고, 자신들의 커뮤니티에 대해 공통된 애착심과 시각을 가질 수 있어야 하며, 나아가 영속적이고 변함없는 인간관계를 유지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한다(Keller, 1968, 김창석, 1989 ‘재인용’). 건축학자들은 이를 위한 물리적 환경 조성을 위해 초등학교가 근린주구 계획의 기준 요소가 되 하며, 집에서 학교까지의 도보거리, 즉 접근성이 근린주구단위의 규모와 배치를 결정하는 기준이 되어야 한다고 말한다(County of London Plan, 1943, 김창석, 1989 ‘재인용’). 사회학자와 건축학자의 주장을 종합해보면, 주민들 사이의 마을 공동체 유대 형성을 위해 접근성은 중요한 기준으로 예상할 수 있다.

가족친화마을환경의 구성영역의 하나로 지역사회 차원에서 사회자본은 주민참여 네트워크가 구성원 상호간 신뢰를 증진시키고 상호 호혜성의 규범을 제고시킴으로써 의사소통을 활성화시키고 나아가 지역사회의 공동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 하는 힘이 될 수 있다(Putnam, 1993b). Coleman(1988)에 의하면 사회자본은 ‘조직집단 내에서 공동목적을 위해

함께 일할 수 있는 사람들의 능력’이라 정의된다. 지역사회의 사회자본은 공동체 의식을 발전시키고 주민들의 민주적인 의사결정, 광범위한 참여와 연대를 통해 가족친화적인 마을환경 조성과 같은 공동선(common good)을 추구할 수 있도록 한다(박희봉, 2002)

조직의 유형이나 함께 하고자 하는 활동 종류에 따라 학자들이 제시하는 사회자본의 구성요소는 상이하게 나타난다. Putnam(1993a)은 사회자본의 구성요소로 주민참여네트워크, 상호 호혜성과 규범, 사회적 신뢰를 들고 있다. 유현숙, 곽현근과 배지연(2006)은 여성의 사회자본 연구에서 동네조직 참여, 이웃과의 비공식적사회적 유대 및 연대감, 이웃에 대한 신뢰, 제도 신뢰, 동네애착, 동네에 대한 만족감, 관용을 구성요소로 밝혔다. 천현숙(2004)은 대도시 지역 아파트단지를 대상으로 요인분석을 한 결과 친밀도, 공동체 의식, 참여도, 신뢰도를 사회자본의 구성요소로 도출하였다. 친밀도는 눈인사하기, 이야기 나누기, 자녀돌봄 맡기기, 일용품 빌려주기 등의 문항이 포함되어 있으며, 참여도에는 반사회, 부녀회 등 마을 조직 참여 문항이 포함되어 있다. 공동체 의식과 신뢰도는 각기 ‘공동체 의식을 느낀다’, ‘이웃을 신뢰할 수 있다’와 같은 주관적 인식 문항을 포함하고 있다.

한편 마을환경의 가족친화적인 수준 평가라는 관점에서 가족친화성 개념을 사용한 연구들이 있다. 유재연과 진미정(2013)은 지역사회 가족친화성 인식을 묻는 연구에서 지역사회의 안전, 양육환경, 생활편리성, 양육환경에 대한 만족도, 주관적 가족친화성 수준의 5개 문항으로 조사하였다. 어린이집 수, 영아전담 어린이집수가 지역사회 가족친화성 인식과 정적 관계가 있음을 밝히고 있다. 노신애와 진미정(2013)의 연구에서는 가족친화성을 ‘내가 살고 있는 지역사회는 가족친화적이라고 생각한다’라는 1개 문항으로 측정, 가족친화성이 무엇인지에 대한 구성요소는 응답자의 주관적 인식에 위임하였다. 박주희(2010)는 가족친화적 생활환경 요소로 거주환경만족

도, 가족지원시설 만족도, 가족지원프로그램 만족도, 지역사회의 생활정보 접근성을 설정, 시설 인프라에 대한 만족도를 가족친화적 환경의 중심 요소로 활용한 연구를 진행하였다.

Ⅲ. 연구내용 및 방법

1. 연구내용

본 연구는 돌봄공동체에서 주도적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리더 또는 리더 집단 구성원들이 인식하고 있는 가족친화마을 개념을 파악함으로써 이들이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바람직한 가족친화마을환경이 갖추어야 할 기준 요소, 시설 및 서비스 인프라에 대해 밝히고자 하였다. 관련법 제 8조에 의거 시행되는 가족친화사회환경 조성 실태조사(김혜영 외, 2009, 이영범 외, 2012, 최인희 외, 2016) 및 가족친화지역사회 환경 조성 정책 실효성 강화 방안 연구(정가원 외, 2019)를 참고로 가족친화지역사회 환경의 기준 요소, 시설 및 서비스 인프라 영역을 구분, 조사하였다.

구체적으로는 다음과 같다.

- 첫째, 돌봄공동체 리더들은 가족친화마을환경을 어떤 개념으로 인식하고 있는가?
- 둘째, 돌봄공동체 리더들은 가족친화마을환경이 갖추어야 할 기준 요소(안전성, 자연친화성, 접근성, 편리성 등)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 셋째, 돌봄공동체 리더들은 가족친화마을환경이 갖추어야 할 시설 및 서비스 인프라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2. 연구대상 및 방법

본 연구는 질적 연구로서 대면 인터뷰를 통한 심층적 사례연구를 하였다. 제주지역에서 지자체의 돌봄 공동체 공모 사업에 지원 신청하여 선정된 그룹으로서 현재 사업에 참여중이거나 참여한 경력이 있는 부모들을 대상으로 하였다. 조사 시점인 2019년 12월 기준, 해당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팀은 총 62개 팀이며, 이중 3팀에 참여하고 있는 부모들 6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3팀 선정은 해당 사업보고서(손태주·차성란, 2019)를 참고로 하였다. 선정 기준은 사업에 참여한 팀 구성원들이 공모사업 기준인 수놓음육아팀의 자녀돌봄에서 보다 발전된 마을단위의 공동체 돌봄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는 팀이었다.

인터뷰 날짜 및 장소는 제주시 화북동 팀 중 A씨 경우, 2019년 7월 13일 오전에 수놓음육아나눔터에서, B씨는 2019년 7월 17일 오전에 본인이 운영자로 속해 있는 사회적협동조합 사무실에서 인터뷰 하였다. 함덕리 팀인 C씨는 2019년 7월 17일 오후, 제주시 소재 카페에서 인터뷰하였다. 덕수리 팀은 2019년 7월 13일 오후, 새마을문고에서 해당 팀에 속해있는 부모 3명을 대상으로 인터뷰하였다. 인터뷰는 각 팀 기준 약 2-3시간에 걸쳐 진행하였으며, 추후 전화를 통해 필요한 내용을 보완하였다. 조사대상자들의 동의를 얻어 인터뷰 내용은 현장 녹음을 하였으며, 이후 전사 과정을 거쳤다. 문법상 오류, 문맥의 부적합이 있는 경우에도 현장의 상황과 분위기를 전달하기 위해 인터뷰 내용을 가능한 수정없이 그대로 제시, 결과분석을 하였다.

3. 조사문항 및 내용

조사문항은 돌봄공동체 리더들이 인식하고 있는 가족친화의 개념을 파악하기 위해 다각적 접근을 하였다. 가족친화, 가족친화마을 개념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직접 질문하는 문항, 현재 거주하고 있는 마을의 가족친화 수준에 대한 평가를 질문함으로써

어떤 요소를 통해 가족친화 수준을 평가하는지 파악하고자 하였다.

인터뷰는 비구조적 방식이나 질문을 위한 기본적인 항목은 아래의 <표 1>과 같으며, 연구 대상자의 특성에 따라 질문 항목을 조절하였다. 또한 인터뷰 과정에서 답변 내용에 따라 연구자의 판단에 따라 추가적인 질문을 하였다.

본 연구자는 2017년부터 제주도 돌봄공동체 공모사업에 심사, 컨설팅, 교육 등에 참여한 경험이 있어 사업의 시작 단계에서부터 진행 과정에 대해 이미 숙지한 상태이다. 또한 그동안의 사업과정을 통해 조사대상자들과의 라포가 형성되어 있다고 볼 수 있어, 조사 내용에 대한 타당도가 높다고 볼 수 있다.

<표 1> 인터뷰 기본 항목

구분	내용
일반적 특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성별 - 연령 - 자녀수 및 연령 - 취업여부 및 직업 - 교육수준 - 월평균 가계소득 - 주택유형 - 주택 소유형태 - 이주기간(현 마을 거주기간)
가족친화 의미	정부에서는 가족친화사회환경조성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영어로 family friendly라고 하고 가족친화라는 용어를 사용합니다. 무엇이 가족친화라 생각하십니까?
가족친화 마을환경 개념	<p>가족친화마을환경 조성 정책 방향에 대한 평가</p> <p>법에서 이야기하는 가족친화마을환경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가족친화사회환경 조성 추진에 관한 법 제 2조 1항의 가족친화사회환경 개념 정의 및 동법 제 2조 4항의 가족친화마을환경 개념 정의를 제시)</p> <p>이상적인 가족친화마을</p> <p>귀하가 생각하는 가족친화마을은 어떤 마을입니까?</p> <p>가족친화 수준 평가 기준</p> <p>지금 살고 계신 마을이 얼마나 가족친화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p> <p>마을에 대한 만족도 및 이유</p> <p>현재 살고 계신 마을에 대해 얼마나 만족하십니까? 만족하는 가장 큰 이유, 불만족하는 이유들</p>
가족친화 마을환경 인프라	<p>가족친화마을환경 평가</p> <p>현재 마을에 설치되어 있는 시설이나 프로그램, 서비스의 양, 종류, 서비스 수준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p> <p>현재의 시설 및 서비스의 양적, 질적 수준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p> <p>좀 더 가족친화적인 마을이 되려면 어떤 물리적 환경이나 여건이 조성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p> <p>서비스 및 인프라</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설 : 보육시설 및 서비스, 노인관련 시설 및 서비스, 가족관련 시설 및 서비스, 공원 녹지, 예술, 문화 공연 시설 및 서비스 - 기준 요소 : 안전성, 편리성, 접근성, 자연친화성

IV. 연구 결과 및 해석

1. 조사대상자 및 대상지역 특성

본 연구의 조사 대상자 연령은 모두 40대였으며, 이중 5명은 여성, 1명은 남성이었다. 직업은 응답자 (A) 와 (B) 는 전업주부, (D) 와 (F) 는 자영업, (E) 는 파트타임으로 일을 하고 있었다. 유일한 남성인 응답자 (C)는 교회 목회자였다. 교육수준은 모두 대학교 졸업이었으며, 목회자인 (C)를 제외하고 최저 200만원에서 최고 1,200만원에 이르기까지 넓은 소득 분포를 나타냈다. 자녀는 응답자 (C)는 3명이었고 나머지 응답자는 모두 2명이었다. 자녀연령은 3세 자녀를 제외하면 6세부터 13세까지 분포하고 있어 어린이집 또는 초등학교에 재학 중인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부모들이었다. 주택형태는 (A)와 (B)는 대규모 아파트 단지 거주, (C)는 소규모 아파트 단지 거주, (D), (E), (F)는 같은 마을의 단독주택 거주자였다. 주택소유형태는 (A), (C), (F)는 자가였으며, (B), (D), (E)는 임차거주였다. 제주에서의 거주기간은 최소 3년에서부터 6년까지로 평균 4.6년이었다.

조사대상자 6명이 거주 및 공동체돌봄을 하고

있는 지역은 각각 도시 특성을 지니고 있는 제주시 화북동 소재 아파트 단지(450여 세대)(이하 화북동 팀), 해당 단지 주변에 다른 마을이 형성되어 있지 않은 신개발지역인 제주시 조천읍 함덕리(저층형 4 개동) (이하 함덕리 팀)의 소규모 다세대주택 단지, 다수의 제주 선주민과 소수의 이주민들이 거주하는 서귀포시 안덕면 덕수리(이하 덕수리 팀)의 농촌형 단독주택 마을이다.

2. 돌봄공동체 리더들이 인식하는 가족친화마을환경의 개념

○ 이웃 주민들 사이의 '느슨한 유대'로 특징지어지는 친밀감

가족친화마을환경으로 규정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요소는 마을에 거주하는 주민들 사이의 느슨한 유대로 요약할 수 있다. 바람직한 가족친화마을환경에 대한 질문에 (C)는 '연결', '소통'이라는 단어를 (B)는 '반갑게', '만나 인사할 수 있는'이라고 답하였다. 연결이나 소통의 단어는 낮은 수준의 유대관계, 만나면 반갑게 인사를 할 수 있는 낮은 수준의 친밀감을 가족친화마을의 요소로 인식한다고 볼 수 있

〈표 2〉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지역	대상자	연령	성별	직업	교육	월평균 가계소득 (만원)	자녀수 및 연령	주택유형	소유형태	이주기간
화북동	A	40	여	전업주부	대졸	1,200	13세, 11세	아파트	자가	아내 5년 남편 10년
	B	45	여	전업주부	대졸	1,000	7세, 9세	아파트	임차	4년
함덕리	C	42	남	목회	대졸	-	3세, 6세, 9세	아파트	자가	3년 (현 마을 2년 5월)
	D	45	여	자영업	대졸	700	7세, 11세	단독주택	임차	4년
덕수리	E	43	여	파트타임	대졸	400	10세, 7세	단독주택	학교살리기 주택	3년
	F	43	여	자영업	대졸	200	9세, 11세	단독주택	자가	6년 (현 마을 4년)

다. 가족친화마을환경 조성의 세 요소를 삶터만들기, 사람만들기, 공동체만들기로 본다(차성관, 2010) 돌봄공동체에 참여하고 있는 이들은 공동체만들기를 가장 우선적 조건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하지만, '그냥 같은 동네에 사는'이라고 표현하듯 이들이 원하는 것은 전통사회의 전형인 주민들 사이의 강도 높은 정서적, 사회적, 물질적 소통이 이루어지는 강도 높은 유대 관계 수준은 아니다. 같은 마을에 살고 있는 주민으로서의 소속감을 느끼는 정도의 구속 없는 유대, 개인생활의 자유가 보장되는 낮은 수준의 유대를 원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어, 물론 디테일은 다양한 모습이 있겠지만, 저는 연결되어 있었으면 좋겠거든요. 뭐냐면, 예를 들어서 수놓음 나뭇터를 통해서 저희가 SNS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고 있는지를 서로 소통하잖아요. 근데 사실은 같은 마을에 살고 있는데 이름은 알고 있고, 누가 뭘 하는지는 알고 있는데, 어떻게 살고 있는지, 무엇을 추구하고 있는지를 저는 서로 소통할 수가 없어요. . . . (중략) . . . 그래서 가족친화마을이라는 것이 사실은 소수의 그룹들이 친하게 지내고 이런 것들은 있지만 큰 개념에서 마을이 우리가 좀 더 연결, 사람과 사람이 연결되어 있는 구조가 되려면. . . (C)

저는, . . . ㅎㅎ 정말 어려운데, 그냥 만나면 서로 그 반가워할 수 있는, 그런 누구를 동네에 누구를 만나더라도 그냥 반갑게 만나 인사할 수 있는, 그런 마을이면 좋겠어요. 그 사람의 너무 속속들이 내부까지 들여다 볼 수 없고, 그렇게 해서도 안 되지만, 그래도 마을 안에서 마주치면 그리고 어떤 일을 함에 있어서 서로 어떤 벽이나, 뭐, 저사람. . . 이런 선입견 없이 그냥 우리 동네에 같은, 내가 사는 곳에 같이 사는 주민이구나. 동네 사람이구나.(B)

○ 전 세대를 아우르는 소통

응답자들이 기대하는 소통은 단지 육아기에 있는 부모들끼리만의 소통에 머물지 않는다. 일상적 생활이 이루어지는 물리적 공간으로서 마을 안에 거주하는 모든 주민들을 포함하는 소통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덕수리 돌봄공동체 참여자(D, E, F)들은 자녀돌봄에 집중되어 있는 공동체가 세대간 갈등을 일으키고 있음을 지적하면서 세대간 소통이 필요함을 이야기하고 있다. 마을 주민이나 노년세대와의 갈등에 대해 이들은 소통 부재를 그 이유로 인식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단순히 마을이라는 지리적 공간을 공유하고 있을 뿐, 노인세대와는 같은 마을 주민으로 인지되지 못하고 있다. 마을 노인들로부터 주민으로서의 지위가 거부되고 제 3자 지위의 커피타는 사람으로 인식되는 세대간 갈등 상황을 문제로 파악하고 있다. (F)는 가족친화마을이라는 질문에 스스로 '마을 친화', '마을 가족'이라는 단어를 말하고 있다. 단지 양육기 부모들만의 공통 목적으로서 자녀돌봄의 사회적 방식으로서의 해결이 아니라 자녀돌봄을 포함한 가정생활의 장으로서 마을 환경에 대한 접근을 취하고 있다고 해석된다.

노인회랑 같이 이렇게 한 번씩 모이는 자리를 만들어 주는 것도. . . (F)
근데, 그게 쉽지 않아. 방금도 봐봐, 우리가 커피 타는 사람인줄 알잖아.(모두 웃음)(D)
그러니까 자꾸 오해만 쌓이는 거예요.(E)

근데 이렇게 또 어린애들이 없으신 분들이 생각할 때는 너무 애들, 자기 애들 위주로 하는 게 아닌가? 그렇게. 마을 행사도 보면 저희는 아직 거의 노인회 거의 위주이거든요. . . (중략) . . . 마을 친화라고 하면 마을 가족, 뭐 친화라고 하면 서로가 다 조금씩 잘 알고 지내고 해야지 아 저 애 누구네 집이다 저 할머니 어디 사시는 분이다. 정도는 알아야 친화가 될 건데 아직까지 그 정도의 어떤 계기가 없어서(F)

이들은 세대와 연령과 무관한 마을 주민이라는 공통분모를 기반으로 한 소통을 지향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노인세대와의 소통 뿐만 아니라 영유아에서부터 중고등학생에 이르기까지 확장해 학령기 전 연령층과의 교류를 바람직한 것으로 여기고 있었다.

하, 글썄요 일단은 만나지도 못하니깐 학부모총회에 만나도 우리 학교 다니는 학부모들만 볼 수 있거든요 그것도 학교에 관심 있는 몇몇 분들만 볼 수 있는 거거든요 할머니나 노인 분들은 볼 수 없잖아요... (중략)... 이런 수 놓음이 이렇게 초등학교 유치부만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중고등학교 까지 확대가 좀 돼서, 그런 연계사업이 조금은 되고 쉽터도 있고, 그런 활동이 좀 더 됐으면 좋겠어요... (중략)... 지금 여기 있는 초등학교 애들이 책도 볼 수 있고 이렇게 주체가 돼서 저희가 하는 활동 있잖아요. 뭐 수업같은 경우 그런 것도 참여할 수 있는 중고등학교 프로그램도 마을에서 해서 했으면 좋겠어요... (중략) 진짜 근데 좁은 의미로는 저희가 중심이 돼서 그렇잖아요. 여기에서 지향하는 걸로 돼서는 진짜 지리적으로 덕수리에 있는 초중고아이들이 다 연계가 돼서 있었으면 좋겠어요 저는. (연계를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졸업을 하면 중학교를 가면 흩어지잖아요. 개념은 이제 이런 돌봄에서 제외가 되는 게 아니라 마을에서 지금은 없지만 마을에서 하는 어떤 마을문고 활동이라든지 이런 게 서로 돼서 개념들도 그 마을에서 (E)

맞아 그것도 조금 아쉬운 게 지금 저희가 초등학교 학부모들 위주로 하다 보니 진짜 유 지원 영유아 애들은 또 이런 활동 참여를 저희가 모르니까 저희도 모르고 그 분들도 모르시고(F)

(F)는 가족친화마을환경 조성을 위한 정책추진의 목표를 충분히 파악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

다. ‘진짜 가족친화마을’이라는 단어는 곧 정책 목표가 무엇인지에 대한 접근이라 할 수 있으며, 그에 대한 답으로 마을 전체의 소통을 이야기하고 있다.

궁극적 목적이 지원금을 주고 할 때는 그러면 전체 마을 단위에서 이렇게 진짜 가족친화 마을이 되라는 의미로 이렇게 시작을 하는 건데 그렇게 하려면 마을 전체가 서로가 소통하는(F)

○ 선주민과 이주민 사이의 소통도 포함하는 이웃과의 유대

제주는 최근 몇 년간 외부로부터의 유입인구가 크게 늘고 있는 지역이다. 낮은 생활환경에서 새로운 적응을 필요로 하는 이주민들의 입장에서 볼 때, 선주민은 지리적, 공간적 권력을 지니고 있다. 상대적으로 낮은 권력을 지닌 이주민들은 선주민들과의 소통을 주도적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입장에 처해있다. 공간권력에서의 차이로 인한 갈등은 이주민으로 하여금 좀 더 큰 소통의 요구를 갖는 것으로 보인다.

선주민과 이주민 사이의 공간적 권력 차이는 세대 권력과 복합적으로 얽혀있다. 선주민들은 지역에 오래 거주한 주민들로서 연령이 높은 경향을 지닌다. 통해 마을공동체를 조성하는데 있어 소통 문제 해결의 주도권을 갖고 있는 선주민을 대상으로 한 인식 변화 노력이 우선되어야 하는 이유를 여기서 찾을 수 있다.

육지에서는 그래도 그게 육지는 아파트 단위 위주잖아요 사는 부류가 다 비슷했어요 공감대도 비슷한데 여기는 너무 다양한테 공감대를 맞출 수 있는 기회도 없고 이웃은 이웃인데 커뮤니케이션이 안 되는 그런 거? 그런 게 조금, 그 사람들한테 서로 좀 이해도 해줄 수 있었으면 좋겠고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런 부분 때문에 여러 가지 다른 일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족한 부분(E)

근데 또 노인 쪽은 여기 원래 사시던 분 많으시고 아이들도 이주민이 많아요. 그래서 이 상호 섞이지를 못해요. 그런 작업이 좀 필요할 거 같아요. 그 분들은 그분들 나름대로 저희를 오해하고 계시고 우리도 우리 나름대로 저분들을 오해하고 있으니까 그런 게 좀 필요한 거 같아요. . . . (중략) . . . 이제 이주민과 여기 있는 사람들과 조화가 되어야 하고, . . . (중략) . . . 마을 축제에 초대 받아 가도 그분들은 그분들끼리만 계시고 이주민은 이주민끼리 가는데 그걸 중간에 어떻게 해주시는 분도 없으시고 그거를. (E)

○ 희망하는 가족친화마을환경, 마을돌봄

응답자들은 현재 거주하고 있는 마을에서 만족하는 요소로 마을돌봄을 꼽았다. 가족친화마을의 필요조건으로 보기는 어려우나 자녀돌봄의 문제를 정책적으로 접근하는 경우, 참고할 사항이다. 돌봄 공동체 참여 중 응답자 (A)를 포함하여 협동조합을 설립한 3명의 어머니들은 특히 높은 유대관계를 형성하고 있다. 이들은 서로의 자녀들을 대상으로 공동의 양육자 역할을 수행하고 있어 결과적으로 마을돌봄을 실천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A)는 돌봄공동체 또는 마을공동체, 마을돌봄에서 이웃과의 유대에 밀바탕이 되는 것은 서로에 대한 신뢰, 그리고 주고받는 도움을 피해라고 생각하지 않는 것은 상호부조적 관계, 나아가 공동체 유대형성의 중요한 출발점이라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양육의 입장에서 어른과 아이도 있고, 아이를 키우는 입장에서 옆에 있는 사람이 같이 키워주니까, 좋은 거예요. . . . (중략) . . . 엄마와 딸이 자꾸 부딪혀요. 친엄마와 다른 성격이니까, 다른 엄마랑 우리 아이가 잘 지내거든요. 엄마가 3명(협동조합 같이 하는 다른 두 명의 엄마를 포함해서) 같은 거예요. 그런 마음으로 봐주는 거죠. 왜 덕질이라는 거 있죠. 우리 아이가 아이들을 좋아해서, 아이들을 좋아

하기 시작했어요. 저는 어렸을 때도 연예인을 좋아하지 않았는데, 플로리스트 언니가 이선희 팬이에요. 좋은 게 있으면 보내주고 그래요. 덕질이죠. 우리 애하고 마음이 맞는 거예요. 이모하고 그걸 배우는 거 같아요. 진짜로 내가 키워주고, 보듬어 줄 수 없는 것들을 옆에서 세심하고 봐준다는 느낌이 들어요. (A)

한번은 우리 아들이 목욕탕에 가고 싶다고 했는데 우리 집에 쌍둥이들이 놀러왔었던 거예요. 근데 이 쌍둥이들은 목욕탕에 가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남편이 셋을 데리고 간 거예요. 그 엄마가 못 믿었으면 못 보내는 거죠. 서로 신뢰가 없으면 안 되잖아요. 폐 끼치는 것 같아 못하는데, 피해라고 생각하지 않고 주고받는 정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응답하라 그 시절처럼, 주거형태는 다르지만 소소한 일상에서 그런 따뜻한 마음을 느끼는 것 같아요. (A)

○ 가족구성원 모두의 가족생활이 실현되는 마을

(A)(C)(F)의 사례를 살펴보면, 이들이 실천하고 있는 공동체 돌봄은 단지 자녀돌봄의 부담을 경감하겠다는 부모역할 차원에서의 접근으로 보기 어렵다. 공동체 가치와 공동체적인 생활방식에 대한 지향이 자녀돌봄에서 드러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들은 엄마는 물론, 아빠, 아이들이 마을 안에서 생활할 수 있는 시간과 공간적 환경, 이웃과 어울리며 지내는 마을생활에 대한 가치 지향을 지니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A)는 가족구성원들이 마을 안에 머물 수 있는 시간을 말하고 있다. 마을에 거주하는 모든 주민들이 마을 안에서 생활할 수 있는 사회문화적, 제도적 환경으로까지 영역을 확대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마을 안에서 머물 수 있는 시간’이란 일·가정 양립의 가치, 일·가정 양립이 가능한 직장환경, 일·가정 양립을 수용할 수 있는 마을환경에 대한 요구를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가족구성원들이 마을 안에 머물 수 있는 시간이 많아야 한다는 생각... (중략)... 저녁에 다니면 가족분들이 같이 밥을 먹으로 간다거나. 삼삼오오 모여서 지나가는 것을 볼 수 있어요.(A)

(A)는 세대와 성별에 관계없이 마을에 거주하는 주민들 누구나 마을에서의 생활이 가능한 물리적 여건이 조성될 필요성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다. 그러한 물리적 환경에 대한 강조는 단순히 시설이나 서비스 관점 그 이상의 소통의 가치를 나타낸 것으로 볼 수 있다. 즉, 노인, 아동, 청소년 등으로 구분하는 것이 아니라 가족의 소통 기회가 제공되는 환경, 나아가 이웃해 있는 가족들과의 소통이 가능한 환경의 필요성을 언급하고 있다. 특히 (C)(F)은 아빠와 아이들이 함께 활동할 수 있는 물리적 시설 및 공간의 필요성을 말함으로써 마을 안에서 남성 또는 기혼남성을 수용할 수 있는 공간적 환경이 조성되고 있지 못함을 말해주고 있다.

가족들이 다 갈 수 있는 곳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건 노인, 아동, 청소년, 이렇게 특정 대상이 갈 수 있는 곳이 아니라 가족이 함께 갈 수 있는 곳이에요. 약간, 아빠들이 와 있으면 수놓음은 불편한가 봐요. 오히려, 상대적으로 도서관은 (아빠들이 불편해 하는 것이) 덜하거든요. 내가 가면 어색한(곳이 아니라), 누가 와도 하고 싶은 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있어야 할 것 같아요... (중략)... 오락과 여가를 세대, 취향을 구분해서 하잖아요, 아이들은 피시방, 노래방, 아빠들은 당구장 가잖아요. 다 같이 뭘 하고 놀아야 할지 모르는 것 같아요... (중략)... 나아가서 가족 뿐만 아니라 가족과 가족이 함께 모일 수 있는 공간도 없어요.(A)

명절에 이주민들이 여러 이유로 가족만 여가 남으니까 수놓음에서 같이 놀아요. 율놀이도 하고, 전통놀이도 하면 그게 좋더라고요. 아

빠들도 그런 계기가 있고, 시간, 여건이 허락하면 같이 할 수 있을 것 같아요.(A)

공간을 발굴 및 제공을 해야 되죠.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중략)... 어 근데, 공간이 너무 제약이 되는데, 우리가 꿈꾸는 건 예를 들어서 퇴근 후에 아빠들끼리 모여서 취미생활을 같이 한다든지 하고 싶은데, 남자들은 목공, 이런 거 좋아 하잖아? 아 그래서 애들하고 막 하고 그랬으면 좋겠어. 근데 중요한 건, 그럼 어디서 해? 마을 사람들이 와서 얘기하는 거예요. 야, 우리 마을 안에 빈땅이 있는데 저기에 뭔가 조그맣게 지을 수만 있으면 다목적실로 우리가 이용하면서 (... (중략)... 건축비만 되면 되는 건데, ... 거기 그거 있으면 해보고 싶은 게 너무 많은 거예요. 애들 하고도, 저희가 꿈꾸는 건 그런 거예요. 아빠들이 행복해지면, 아이들에게 (행복한 경험을 줄 수 있거든요) 저희가 경험했거든요. 아빠가 스트레스를 풀고, 아빠들끼리 가끔씩 사실은 주민들은 밤에 아빠들이 모여서 9시에 번개하기도 해요. 저는 아는데. 번개를 해요. 자기들끼리 마음 맞는 아빠들끼리 9시에 모여서 맥주 한잔하고, 한 시간만 이렇게 수다 떨다 가세요. 그리고 어떤 분은 뭘 가르쳐 줘요. 내가 캐드하는거 있는데 배울래요 해가지고 아빠들 모아놓고 거기서 가르쳐요. 밤에 근데 그런 거를 우리는 너무 하고 싶은데 장소가 제약이 되는 부분들이 있죠.(C)

아빠들이 운동하면서 아이들 활동하는 것도 볼 수 있고 가족전체가 그, 마을 친화적인 것에 모여 있을 수 있는 거죠(F)

3. 돌봄공동체 리더들이 인식하는 가족친화마을환경의 기준 요소

○ 아이들을 키우기에 안전한 마을

바람직한 가족친화마을환경에 대한 질문에 소통 다음에 이어지는 답은 안전이었다. 또한 안전은 물

리적 환경 조건으로서 대부분 응답자들이 지적하고 있는 공통된 요소였다. 안전은 물리적 요소와 관계적 요소의 두 개 요소를 포함하고 있다. 차량 통행이나 주차 차량으로부터 보호될 수 있는 물리적 환경이 첫 번째 요소이다. 관계적 요소는 노인을 포함한 마을에 거주하는 주민들이 공동체 유대관계가 형성되어 있을 때 확보될 수 있는 안전이다. 물리적 환경 측면에서 안전함을 인식하는 요소는 교통안전, 단순 사고나 범죄로부터의 안전이 보장되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고나 범죄로부터의 안전은 아이들이 밖에서 마음 놓고 놀 수 있는 마을환경, 부모들의 관찰 범위에서 벗어나도 걱정하지 않을 수 있는 마을 환경으로 해석되고 있었다. 관계적 요소에서의 안전은 마을에 거주하는 이웃주민, 노인들이 마을의 아이들을 돌보아 주는 기능을 하고 있는 마을환경을 의미한다. 관계적 요소가 만들어 내는 안전은 주민들 사이의 공동체 유대가 일정 수준 이상 형성되어야 가능하다. 이는 가족친화마을환경 요소로서 안전을 평가함에 있어서 차등이 필요하다는 점을 의미할 것이다.

교통안전시설, 그게 항상 두려움이에요. 인도도, 지금 인제 덕수초 정문에서 이렇게 올라가는 길이 2차선 도로인데 인도가 양쪽으로 없어요 그래서 그냥 봉만 세워져 있는 상태고 일부 구간에 그것마저 없어서, 주차되어 있어서 아이들이 통학하는데 사람들이 다니는 데 굉장히 위험해요. 근데 통행량이 되게 많아요. . . (중략) . . . 그래서 그런 부분을 어떻게 해야 하나? 그런 부분은 개인이 할 수 있는 부분이. . . (중략) 그게 그 문제가 (해결) 안 되면 이 마을에 안정성이. . . 교통사고도 크게는 안 났지만 아이들이 (교통사고가) 계속 났거든요. (D)

안전성이 저는 제일 중요해야 한다고 생각하구요. 아이들 시설 이용할 수 있을 때, 사고

를 방지한다든지, 주차 차량에 대한 이런 것들에 있어서 애들이 맘껏 활동할 수 있는 그런 안전이 보장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구, 편리성이 그 다음일 것 같구요, 저는. (C)

부모들은 교통안전 외에 부모의 감독 없이 마을에서 아이들이 안심하고 놀 수 있는 마을돌봄의 상태를 안전의 특성으로 꼽고 있다. 특히 (D)는 마을의 안전을 양육자의 근시안적 관점이 아니라 마을 주민들 모두가 거주하기에 안전한 마을이 되어야 한다는 통합적 관점을 이야기하고 있다.

아이가 밖에 나가있어도 불안하지 않은 동네, 마을? 뭐가 내가 아니어도 이웃 누군가가 아이를 지켜줄 거라는 믿음이 있는 이런 마을이 아닐까. . . (중략) . . . 근데 아이한테 편리한 시설이 노인들한테 편리한 시설이기도 하잖아요. 사실은 안전이라던가 이렇게 (D)

학교, 마을회, 뭘 부녀회, 노인회가 이렇게 다 연관이 되어 있어서, 그러니까 언니 말대로 어디에 가 있어도 걱정이 (없다), 아 저기에 가 있으면 저기서 잘 놀고 있겠다. 그런 걸 우리가 (E)

저는 이 중에서는 그래도 안전성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 . 아이들이나 아니면 이제 노인 분들 다니실 때, 물리적으로 차가 위험할 수도 있는 거고, 사람이 위험할 수도 있는 거고, 제주는 서울처럼 흉흉한 범죄는 없지만, 그런 부분의 안전성이 확보되어야 일단 안전하다고 생각해야 밖으로 나올 거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B)

학교가 가깝고, 복잡한 곳이 아니고, 조성된 곳이다 보니, 깔끔해서 아이들 키우기가 안전하다고 느끼는 것 같아요. (A)

○ 안전 다음으로 중요한 요소인 편리성

가족친화마을 기준 우선순위로써 안전성, 다음으로 편리성이 중요한 요소인 것으로 나타났다. 접근성은 차량 이동이 일상생활에서 보편적 방식이 되고 있다는 점에서 우선순위가 낮아진 것으로 볼 수 있다.

생활편의 시설이 기본적으로 갖추어져 있어서 편리하구요.(A)

접근성은 뭐 다들 대부분 차량들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조금 불편하더라도 안전성과 편리성이 보장되면 이 부분은 얼마든지 극복할 수 있는 문제일 것 같구요. 자연친화성은 당연히 그대로 있으면 제일 좋은 거구요.(C)

○ 규모가 작더라도 접근성이 좋은 다수의 시설 설치에 대한 요구

근데 그게 일부러 시간을 내서 찾아가는 시설인 게 안타까운 거죠. 이게 지금 새마을 금고 있는 것처럼 읍사무소 있는 것처럼 좀 규모가 작아도 작은 규모로 계속 이루어질 수 있으면 훨씬 더 여러 가지 프로그램 운영이 가능할 텐데... (중략)... 뭐 이렇게 하려면 다 차를 타고 뭐 하려면 수영하나 하려면 중문까지 가서(D)

우리한테 맞게 (E)

○ 자녀가 다니는 학교 기준의 접근성 요구

적어도 초등학교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가정의 경우, 자녀 또는 가족이 이용하는 시설들을 설치할 때, 학교는 중요한 기준점이 되어야 함을 알 수 있다.

전 일단 학교랑 가까운 게 중요한 거 같아요. 애들이 학교가 끝나면 갈 데가 없어서 그 이후가 이제 각자의 부분이 되는 거 같아요.(E)

나도... (중략)... 모두 학교랑 시설이 (가까와야 한다)(F)

그래야지 아이들도 편하게, 자주 이용할 수도 있고(D)

○ 공동체 형성의 조건으로서 접근성

차를 타고 가서 반찬을 나누어 줄 수 없잖아요. 가까우면 애한테, 이거 좀 갖다 주고 와라 할 수 있는 것도 있고.(A)

○ 충족되어 있는 제주의 친환경적 요소

가족친화마을환경의 친환경적 요소에 대한 요구는 높게 나타나지 않았다. 이들은 제주로 자발적 이주를 한 경우로서 제주 정착동기 중 직장 및 사업체 이동이 29.8%로 가장 높은 비율을 나타내지만, ‘제주의 자연에 매력’이라는 응답률이 21.4%였으며, 특히 여성(26.6%)은 남성(16.6%)에 비해 매우 높은 비율을 나타냈다. 또한 영역별 생활만족도 조사 결과 자연환경에 대한 만족도가 5점 기준 4.2점으로 가장 높은 점수를 나타냈다(이화진, 2016). 응답자 중 (F)도 ‘제주 한달 살기’를 한 이후 제주로 이주한 사례인 것 등을 고려할 때, 제주 이주 선택의 이유로 친환경적인 자연환경이 적지 않은 영향을 미쳤을 것이 예측된다. (D)는 자신들이 거주하고 있는 마을은 녹지가 충분하지만, 일반적인 기준으로서 자연친화성이 필요하다는 점을 이야기하고 있으며, (B)는 좀 더 자연과 가까운 곳으로 이사할 의향도 갖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다른 응답자들은 이미 자연친화적 환경이 충분한 것으로 인지하고 있기 때문에 강도 높은 요구를 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즉 가족친화마을환경의 기준 요소로 친환경 요소에 대한 중요성을 낮게 평가한다고 볼 수는 없을 것이다.

녹지는 굳이(E)

근데 필요하지 않아?(D)

필요하기는(E)

여기는 그런데 도시는(D)

저는 조금 더 주변 환경이 자연적인 환경이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애들한테 큰 편의상 문제가 없으면, 개인적으로는 (제주 안에서) 그런 쪽으로 이주를 하면 어떨까. . . (B)

저도 마찬가지로 초등학교에 되게 만족을 하고 있는데 중 고등학교를 생각을 하면서 어떻게 해야 하나 요새 고학년에 들어갈수록 고민거리 중 하나예요(E)

저는 애들이 초등학교 다니는 동안은 이 동네에 있을 생각이예요 (B)

4. 돌봄공동체 리더들이 인식하는 가족친화 마을환경의 시설 및 서비스 인프라

○ 안정적인 정주성을 보장할 수 있는 교육시설 및 교육환경에 대한 요구

교육시설은 현 거주지에 계속 머무르도록 하거나 이주를 고려하게 만드는 요소라는 점에서 중요한 가족친화마을환경의 요소임을 알 수 있다. ‘덕수만한 중학교’라거나(D) ‘초등학교에 되게 만족한다’(E)라고 이야기 하는 덕수리팀은 초등학교의 교육방식에 대해 만족하고 있었으며, 계속 거주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반대로 자녀가 진학해야 할 상급학교의 통학여건이나 교육의 질에 대한 불안감이 정주성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사실은 교육환경이 가족친화마을환경 조성에서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한다는 점을 알 수 있다.

(계속해서) 거주는 하고 싶는데, 이제 중학교 고등학교가 면단위에 하나씩 있어요 그 부분 교육여건이, 초등학교 코앞에 있는 건 굉장히 만족스러운데 중학교 고등학교를 걱정하는 것은 면단위 하나 있는데 교육여건이 거기가 또 많이 좋지 않아서 그 부분 때문에 고민이 되는 거예요. . . (중략) . . . 여기서 고등학교를 함턱으로 다니는 친구도 있는데 그건 완전 동쪽이거든요 기숙사 시설이 안 돼 있어서 고등학생이 혼자서 자취를 시작했어요 그런 부분들은 되게 힘들지 않을까? 그런 부분들이 인제 남 얘기가 아닌 거죠 2,3년 뒤에는 다칠 일이나, 거주를 하고 싶지만 고민을 하면서 이렇게 하는 거죠 덕수만한 중학교가 있으면(좋겠는데) (D)

○ 재미있는 삶의 수단으로서 문화 예술 프로그램에 대한 요구

본 연구의 응답자들은 즐거움이나 재미가 우선순위가 높은 삶의 가치이며, 이를 충족시킬 수 있는 수단으로서 문화예술 프로그램을 요구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D), (C)는 공동육아 프로그램, (D)는 예술활동, (B)는 좀 더 구체적으로 예술문화 공연의 필요성을 말하고 있다. 특히 (C)가 거주하고 있는 마을의 경우, 공동주택 단지 외에 다른 상업시설이나 편의시설을 찾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는 전국적으로 농촌 지역의 특성을 대변해주는 것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A)는 가장 넓은 범위에서 가족여가활동이 마을 안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프로그램의 필요성을 언급하고 있다.

서비스에 뭐가 포함되는 건지는 모르겠는데 그런 활동을 하는 단체 같은 것도 조사가 되는 건지, 예를 들면 우리 공동육아라든가 예술인 단체가 있다던가?(D)

다 중요한대요. 저는 제주가 예술문화 공연이 부족하다보니까 더 있었으면 좋겠고(B)

근데 엄마들 피드백은 그게 아니었어요. 이것만이라도 우리에게 계속 해주시면 안 될까요? 요구하는 거예요. 왜요? 애 데리고 거기 나갔다 와야 되는데 정말 해주고 싶는데 할 수가 없네요. 힘들어요. 비용이 비싸요. 강사랑 직접 연결했더니 거의 절반 가격에 하거든요, 저희

가. 장소가 무료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인기 프로그램이라 제비뽑기 해요.(C)

약간. 이게 (여가를) 요즘은 돈 주고 하잖아요. 마을에서 공동체에서 해결할 수 있으면 더욱 가족친화적일 것 같아요.(A)

○ 가족여가시설에 대한 요구

가족들이 함께 하는 활동은 우선순위가 높은 가치이나 이를 수용할 수 있는 시설부족으로 이들은 가족여가시설에 대한 높은 수준의 요구를 보여주고 있다.

가족이 같이 갈 수 있는 시설, 도서관, 미술관, 커뮤니티 센터가 별로 없어요. . . . (중략) . . . 가족들이 갈 수 있는 곳이 많이 생겨야 한다고 봐요. 가족여가시설, 부담없이 가족들이 갈 수 있는 곳, 놀이터도. (A)

일단 가족끼리 여가를 즐길 수 있는 공간이 있어서 자주 만나는 계기가 생긴다 함은 더 이제 범위가 넓어지겠죠 저희가 이렇게 커진 것 처럼(E)

(E)는 복지관 시설에 대한 요구를 밝히고 있다. 그러나 기능적으로 살펴보면 복지서비스가 아니라 가족들이 이용할 수 있는 돌봄, 여가문화시설 서비스에 대한 요구를 말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B)는 노인돌봄이 필요한 상황에서 노인을 위한 서비스를 하고 있지만, 복지관점의 신체적 돌봄이나 의료 지원이 아닌 가족생활의 관점에서 시설, 서비스 요구를 밝히고 있다.

솔직히 그러면 나는 복지관도 있으면 좋을 거 같아요 지금은 복지관이 읍 단위에 있으니깐 저기 읍까지 가거든요 다양한 전 연령을 아우르는 프로그램들(을 해주었으면 해요.)(E)

인제 제가 나이가 부모님들이 엄청 막 아프신 나이가 되다보니까, 요즘 들어 좀 노인관련 그런 시설, 그러니까 너무 딱 경로당이나 무슨 그런 노인건강센터 이런 것 말고, 좀 그분들이 건강하게 좀 더 어떤 취미생활이나 이런 것들을 하실 수 있는 그런 어떤 공간들이 좀 더 있었으면 좋겠다하는 생각.(B)

(A)는 가족단위여가시설 부족의 이유 중 하나로 상업적 논리에 의해 움직이고 있는 현실의 문제를 지적하고 있다. 아파트 주변에 상업시설이 중심이고, 가족이 함께 할 수 있는 시설 그리고 가족과 가족이 함께 모일 수 있는 시설도 부족하다고 말하고 있다.

아파트 주변에 보면 주로 상업시설이에요. 상업시설들은 기능적으로 접근하잖아요. 상업 시설 중에는 식당 외에는 가족이 함께 갈 수 있는 시설이 없어요. 집 이외의 공간에서 가족들이 함께 할 수 있는 시설이 없어요. . . . (중략) . . . 아파트 단지 안에 도서관, 작은 도서관이 있지만 공간이 하나로 여러 가지 역할을 하기가 어렵죠. . . . (중략) . . . 지난번에 정말 화가 났던 게, 삼화지구가 집값이 뛰니까, 저희 아이들이 이용하던 문방구도 딱북이도 없 어졌어요. 아이들 장사니까, 크게 이윤이 안나니 임대료를 감당을 못하는 거예요. 커피숍이 있었는데, 커피숍도 너무 많이 생기면서 문을 닫고 술집으로 바뀌었어요. 일반음식점으로 하니까 허가가 났는데 바로 학교 정문 앞이에요. 포장마차 술집, 너무 충격적이었어요. 자본주의 논리에 따라 마을이 구성되는 것이 너무 아쉬워요.(A)

○ 복합적인 돌봄 및 가족여가활동 공간으로서 도서관, 체육시설에 대한 요구

마을내 설치를 요구하는 시설로 도서관과 체육시설이 공통적으로 지적되고 있었다. 그러나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독서나 운동과 같은 두 시설의 고유

기능 그 이상을 포함하는 복합적 활동 공간에 대한 요구를 하고 있다. 돌봄과 관련된 다양한 활동, 가족들 모두가 이용할 수 있는 가족여가시설과 연관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마을에 필요한 시설로 (E), (D)는 도서관을 이야기했다. 하지만 단순히 책을 읽는 공간으로서의 단순 기능이 아니라 돌봄공간으로서의 복합기능을 하는 도서관에 대한 요구를 하고 있었다. 요약하면 독서와 놀이를 위한 공간에 대한 요구라 할 수 있으며, 놀이는 바깥 놀이가 가능한 옥외공간과 실내 놀이공간을 모두 필요로 하고 있었다.

도서관이면 다 되지 않을까? (그것과) 함께 체육센터? 만약에 '우리 마을에 아무 시설이 없다' 라고 했을 때 우리가 애들을 같이 공동육아를 하기 위해 필요한 게, 도서관 제일먼저음(E)

문고 없었으면 진짜 힘들었겠지. . . (중략)
. . . 도서관, 체육관, 돌봄시설 근데 뭐 도서관에서 이렇게 돌봄시설을 따로 이렇게 ..(D)

산방도서관 예를 들면 도서열람실이 있고 앞에 운동장이 있어서 그리고 강당이 있으면 도서관에서 책하고 놀이방도 있고, 여기서 놀다가 비오면 강당에 가서 즐넘기도 좀 하고(그럴 수 있었으면 좋겠다)(F)

○ 놀이, 운동, 문화프로그램 등이 가능한 다목적 실내활동 공간에 대한 요구

(E), (D), (F), (A) 등은 날씨가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아빠와 자녀, 가족들이 놀이나 운동을 할 수 있는 실내공간에 대한 요구로 체육시설을 이야기하였다. 체육시설이 설치되는 경우, 저녁 시간에 마을 안에서 남성들의 활동이 가능하며(E), 가족들이 함께 놀이를 할 수 있음(D)을 말하고 있다.

이게 아까 말한 실내체육관이 없다보니 학교에서는 저녁에 강당에서 탁구를 하기는 하거든요 아빠 분들만, 좀 그런 시설이 있다면 배드민턴이라도 저녁에 가능하지 않을까? 운영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좀 더 넓어지는. . . (E)

강당 있는 시설이 있어야겠네. . . (중략).
. . . 즐넘기 전통놀이 시설이 없어서 다 못했잖아. 전통놀이도 애들만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나중에 전통놀이 엄마아빠랑 같이 했었거든요. 그러면서 아이들도 되게 좋아하고.(D)

체육시설도 편사무소 가야하거든요 운동시설 같은 게 있으면 오며 가며 할 수 있는 그렇게. . . (중략) . . . 이렇게 돌봄이라든가 체육이라든가 문화 예술 이런 부분들 할 수 있는 공간? 프로그램도(D)

응답자들이 요구하는 체육시설은 오직 운동을 할 수 있는 공간이 아니다. 마을 주민들이 돌봄을 포함하여 다양한 마을생활을 수용할 수 있는 다목적 공간에 대한 요구를 하고 있다. 이상적인 수준에서 요구를 충족시킨다면 건물 내에 도서관, 실내놀이, 운동, 공연, 문화예술 프로그램 등을 할 수 있는 여러 공간들로 구성된 복합 건물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실제 운영되고 있는 사례로 돌봄공간, 놀이방, 공부방, 문화예술 프로그램 등 모든 것을 수용하고 있는 시설의 예를 들어 설명하고 있다. 일본의 경우, 다양한 수준의 기능을 수용하고 있는 아동관 시설이 여기에 해당될 수 있다. 그러나 이들은 현재 마을의 제한적 환경 조건을 고려하여, 다양한 실내 활동을 할 수 있는 다목적 공간으로 체육시설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추측된다.

어린이도서관, 실내체육시설, 공연장, 작은 공연장, 엄청 유명한 곳이 아닌 동네 분들이 취미로 하는 연극도 할 수 있고, 그림도 전시하고, 동네 분들이 자기 전시도 할 수 있고, 공연

도 할 수 있는. 동네 사람들에게 개방되어 있는 그런 . . . 보면 그림을 동사무소에 걸어놓잖아요.(A)

영유아 애들 발레수업도 하고 어른들 필라테스 수업도 하고 탁구도 하고 어른들 기타수업도 하고 그러니깐 예체능을 다하거든요. 놀이방도 있고(D)

놀이방도 (있고) 강당도 있고 주차장도 잘 돼있고 . . . (중략) 카페도 있고(E)

수놓음도 있고 . . . (중략) . . . 애들이 이렇게 숙제를 같이할 수 있는 공부방 같은 그런 공부방이 되면 동아리가 있으니깐 동아리방으로 이용할 수도 있는 거고 그럴 거 같은데(F)

○ 최소 수준의 의료시설로서 보건소 요구

(E)는 지역에 병원이 설치되어 있지 않아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이야기를 하면서 간단한 건강상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보건소 시설이라도 설치되었으면 하는 바램을 이야기하고 있다. 병원 시설은 거주 환경에서 빼놓을 수 없는 기본적 요소이다. 이들은 제주 지역의 자연환경, 교육환경 등 좀 더 우선순위가 높은 요소를 위해 부족한 병원시설의 불편함을 감수하는 자발적 이주를 선택한 예외적 사례라 할 수 있다.

보건소 같은 것도 뭐가 그러니깐 간단하게 건강검진 할 수 있는 피검사라도 할 수 있는 빈혈검사. 할머니들도 유용하고 애들도 갑자기 아프면 가서, 저희 병원도 차타고 가야하거든요. (E)

○ 여성의 제한적 활동 반경인 마을 안에서의 일자리 기회가 주어지는 환경

(A)는 양육기에 있는 여성들이 양육자 역할을 전담하는 상황에서 경제활동의 기회가 제약받고 있으며, 이를 마을 안에서 해결할 수 있을 때, 효율적임

을 말함으로써 가족친화마을환경 조성에서 대안이 제시되어야 함을 암시하고 있다. (A)의 입을 빌어 마을 내에서 일하는 (B)의 사례가 언급되고 있다.

아이를 키우는 엄마들은 마을 안에서 있을 수밖에 없어요. 마을 밖으로 나갈 수 없어요. 아빠들도 마을 안에서 보낼 수 있는 시설이 없어요, 일자리. . . (중략) . . . 꿈 꿔던 거는 마을에서 경력단절 여성들은 마을에서 일하는 데는 충분한 장점이 있어요. 교통비, 식비도 줄어요. 마을에서 일할 수 있기 때문에 안정적이어서, 아이들을 볼 수 있기에 (그 정도만 받아도) 오케이 해요. 마을에서 전문적인, 분도 있지만 중간지대라고 생각해요. 멀리 나가기 힘든 사람들이 마을 일거리를 할 수 있다고 봐요.(A)

플로리스트 언니가 사실 실력 있는 사람인데 독일 국가공인 마이스터데, 경력단절이죠. . . (중략) . . . 본인이 그 일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이들 키우려면요, 그 언니가 그 클래스를 하고 싶어 하고, 돈은 얼마 안 되지만 하는 걸 좋아하니까 하는 거죠. 지난 크리스마스에 수놓음 외부를 트리로 장식하는 것 했잖아요, 경로당 꽃수업도 하고, 동네분들이랑 텃밭 가꾸기, 방과후에도 꽃수업 같은 것 하구요, 페이는 말도 안 되지만 본인이 좋아하는 일을 하니까 할 수 있는 것 같아요.(A)

V. 결론 및 제한점

본 연구는 정책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가족친화마을환경조성 사업이 부진한 여러 이유 중에서 가족친화에 대한 개념 정의가 명확히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문제제기의 출발점으로 삼았다. 돌봄공동체에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있는 리더들을 대상으로 이들이 인식하고 있는 가족친화마을환경 개념을 살펴봄으로써 이들이 기대하는 가족친화마을환경의

조건들을 파악, 앞으로의 가족친화마을환경 조성 정책 추진 목표 및 방향 설정 시 고려해야할 부분들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제주시 및 서귀포시에 거주하며 지자체 공모사업에 선정, 돌봄공동체 활동에 참여하고 있는 리더 6명을 대상으로 인터뷰한 자료를 토대로 분석한 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을 수 있었다.

첫째, 본 연구의 대상자인 돌봄공동체 리더들은 가족친화마을환경을 ‘모든 이웃과 소통이 가능하며, 아이들의 마을돌봄이 이루어지고, 모든 가족들이 마을생활을 누리는 환경’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모든 이웃과의 소통’은 성별, 연령, 세대, 다양한 가족 형태, 선주민과 이주민을 구분하지 않고 서로 연결될 수 있는 유대 관계를 말한다. 자신들이 돌봄공동체 활동에 참여하고 있지만 유아 및 아동기에 있는 가정으로 한정되고 있지 않으며 전생애주기 단계의 모든 가족에 대한 수용성을 나타내고 있다. 청소년기 자녀, 노인세대, 남성의 마을 안에서의 생활에 관심을 두고 있으며, 제주 선주민과 이주민 가정의 지역 안에서의 갈등, 다문화가정의 자녀돌봄도 가족친화마을환경에서 포용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다. 이는 높은 공동체 의식으로 평가될 수 있으며, 결과적으로 사회통합에 긍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공공선을 지향하는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이들이 기대하는 이웃과의 소통은 낮은 수준이지만 연결되어 있는 느슨한 공동체 유대관계로 특징지을 수 있다. 전통사회에서 나타나는 강한 유대가 아니라 현대사회의 사회문화적 환경에 따라 기대수준 역시 변화된 느슨한 유대이다. 같은 마을에 사는 주민으로서 소속감, 친밀감을 가질 수 있으며, 필요할 때 소통할 수 있는 정도의 네트워크가 구축되어 있는 상태를 말한다.

‘아이들의 마을돌봄’은 적어도 느슨한 정도일지라도 마을 주민들 사이에 유대관계가 형성되고, 이웃주민들끼리 서로를 알고 인사할 수 있는 정도의 관계가 형성되어야 가능하다. 마을돌봄은 부모가 직접

감독하지 않아도 아이가 마을 안에 있으면 사고나 범죄로부터 보호될 수 있다는 믿음을 가능케 한다. 가족친화마을환경의 기준 요소인 안전성의 또 다른 확보장치가 될 수 있는 것이 마을돌봄이며, 이는 마을의 사회자본이라 할 수 있다.

이상의 두 가지 사실은 지금까지의 가족친화사회환경조성 정책에서 마을의 사회자본 구축 영역을 좀더 비중 있게 다루어야 할 필요가 있음을 말해준다. 한 사례로 가족친화사회환경 조성 실태조사에서 사회자본을 단순히 마을조직이나 봉사활동 참여 정도로 파악하는 것은 충분치 않으며, 주민들의 공동체 유대 정도를 파악할 수 있는 방안이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모든 가족들의 마을생활’은 가족친화마을이 수용해야 할 기능으로서 이것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직장생활영역에서의 가족친화문화 중 일·가정 양립이 가능한 상태를 필요 조건으로 하며, 가족들의 활동을 수용할 수 있는 시설, 공간 등의 인프라가 구축될 때 충분한 환경으로 기능할 수 있다. 경제활동 참가율이 높은 남성, 맞벌이 가정의 부모들이 가정이나 마을안에서 활동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일 이외의 시간이 확보되어야 한다. 가족친화사회환경 조성 정책의 틀 안에 직장영역과 마을영역이 함께 포함되어 있으나 현재 가족친화 정책은 두 영역의 사업이 분절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바, 이같은 연구결과가 반영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둘째, 돌봄공동체 리더들은 ‘안전성, 자연친화성, 접근성’을 가족친화마을환경이 갖추어야 할 기준요소로 인식하고 있었다. 이중 안전성은 아동기 자녀를 두고 있는 응답자들에게 자녀돌봄환경으로서 가족친화마을환경에서 가장 중요한 기준으로 인식되고 있었다. 안전은 1차적으로 교통으로부터 안전이었으며, 단지내 주차공간, 학교까지의 통학 중 교통사고로부터 보호되는 것을 가장 중요한 문제로 삼고 있었다. 사회자본에 의해 가능한 마을돌봄은 가족친화마을환경의 개념과 연관되어 있으나 안전성과도 연결된다. 마을 이웃이나 노인들이 마을 안에서 노

는 아이들의 보이지 않는 관찰자가 되어줌으로써 안전사고로부터 예방될 수 있으며, 범죄로부터 안전할 수 있다.

자연친화성은 지역의 녹지비율이나 자연경관 등에 따라 요구 수준이 달라질 수 있으며, 농촌지역보다는 도시지역에서의 요구가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접근성은 가족친화마을환경의 시설 인프라 구축 시 기존의 안전성과 쾌적성 외에 추가되어야 할 기준으로 확인됐다. 접근성은 다른 두 기준에 비해 좀 더 다각적인 면에서의 고려가 필요하다. 첫째, 접근성은 가족친화마을환경의 시설 인프라 구축 시 시설 규모와 함께 복합적으로 고려해야 할 기준이다. 마을 안 자녀돌봄 활동이 빈번한 부모들은 규모가 작더라도 쉽게 이용할 수 있는 가까운 거리에 있는 시설 접근성이 중요하다. 소위 ‘번듯한 건물’ 보다는 필요할 때 언제라도 쉽게 이용할 수 있는 ‘다수의’, ‘작은’, ‘소박한’ 시설이 더 의미가 있다. 둘째, 시설 인프라의 접근성을 고려할 때 양육기 가정에서 이용빈도가 높은 시설들은 초등학교가 기준 위치가 되어야 할 것이다. 특히 주택들이 자리잡은 마을의 지리적 범위가 넓은 경우, 다수의 아이들과 부모들의 접근성을 가장 효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된다. 셋째, ‘사회자본 형성을 고려한 접근성 확보’라는 관점에서 볼 때, 가족친화마을환경 조성의 지리적 범위는 일상적 생활이 이루어지는 ‘소규모 단위’의 ‘위계적 구조’로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이웃과의 사이에 빈번한 상호작용을 통해 사회자본이 형성되면 마을 내 시설이나 이웃과의 접근성이 확보될 필요가 있다. 근린주구 이론에서 이야기하는 도보접근성 기준의 생활권은 이상적인 가족친화마을환경 조성 단위가 될 수 있다. 하지만, 최근의 대단위 아파트단지를 지향하는 주거환경 하에서는 도보접근성을 충족시키기가 어렵다. 가족들의 일상생활에 필요한 시설들은 지리적으로 좀 더 넓은 범위를 기준으로 설치한다면 공동체 의식을 바탕으로 한 친밀감, 유대감, 상호부조의 지리적 범위는 좀 더 좁은 단위에서 추진, 여러 개의 사회적 자본 단위가 합해져 하나의

시설인프라 단위를 이루는 방식이 하나의 사례가 될 수 있다.

넷째, 시설 인프라 중, 가족친화마을환경으로 규정되는 차별적 요소는 가족여가문화시설인 것으로 볼 수 있다. 자녀돌봄을 비롯한 가족돌봄, 교통안전, 편리한 생활환경 등은 가족친화마을에서 제공되어야 할 기본적인 요소라 할 수 있다. 응답자들은 가족들이 함께 할 수 있는 비상업적 공간, 다목적 공간에 대한 갈망이 높았으며, 구체적으로는 도서관, 체육시설이 대표적이었다. 도서관이나 체육시설, 심지어 복지관 시설에 대한 요구도 책을 읽는 공간, 운동을 하는 공간,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을 필요로 하는 것이 아니었으며, 가족들이 마을 안에 머무르는 동안 다양한 방식으로 이용할 수 있는 가족여가활동 공간을 요구하고 있었다. 남성들도 마을생활에 대한 요구가 있고, 마을생활을 수용할 수 있는 공간을 필요로 하고 있었다. 마을 주민들의 생애주기, 연령, 성별, 세대 집단의 요구를 반영한 특정 목적의 공용공간 뿐 아니라 온 주민이 공용할 수 있는 여가생활공간, 마을생활 공간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이다.

다섯째, 가족친화마을환경 개념에 일자리 기회 제공, 일을 할 수 있는 공간 확보 등 경제 영역이 포함될 필요가 있다. 연구 결과에 나타나고 있는 양육기 부모, 전업주부의 마을 밖 이동 제약의 문제 외에도 다양한 형태의 가족들이 가계경제 유지를 위한 경제활동의 요구가 있을 수 있다. 가족친화마을환경을 ‘가족의 기능 수행을 지원하는 환경’으로 개념화한다면 다양한 요구, 취약가정의 요구가 충족될 수 있도록 그들의 경제생활을 지원하는 마을의 기능이 필요할 것이다. 마을 내 취약가정을 위한 일자리를 제공하는 독일의 ‘마더센터’가 이상적인 모형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가족친화마을 모델에 적용시킨다면, 안락하고 쾌적한 거주환경, 경쟁력 있는 경제환경, 쾌적하고 즐거운 여가환경(차성란, 2010)으로 요약될 수 있다.

본 연구의 한계점은 다음과 같으며, 제시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추가적인 연구가 진행될 필요가

있다.

첫째, 가정생활주기 중 자녀양육기 가족의 관점에서 인식하는 가족친화마을환경 개념, 기준이라는 점이다. 여러 연구에서 지적한 것처럼 가족친화마을은 모든 생애주기의 가족을 대상으로 그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는 점이 지적되어 왔다. 본 연구는 자녀양육기 부모들의 요구를 반영하는 것임을 참고해야 할 것이다.

둘째, 이들은 돌봄공동체 리더로서 이들의 공동체 돌봄 참여에 대한 자발성, 적극성, 공동체 의식 등은 평균 이상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정책 사업이라는 관점에서 볼 때 해당 내용을 적용함에 있어, 결과의 일반화, 실행가능성, 효율성, 효과성을 기대하기 어려울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업추진의 방향 설정 시 참고 자료로서의 가치가 있을 것이며, 이상적 모형 제시라는 점에서 하나의 기준점으로 삼을 수 있을 것이다.

셋째, 제주에 거주하는 이주민을 대상으로 한 사례연구로서 응답자들은 제주 이주민이 갖는 특성 중 하나인 적극적 삶의 태도를 지니고 있다는 점, 중산층 가족이 중심이 되고 있다는 점, 제주의 지역적 특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대표성의 한계를 갖는다.

넷째, 가족친화의 중요 부분인 돌봄에 있어 취약계층이라 할 수 있는 한부모가족, 조손가족, 다문화가족 등 다양한 가족의 문제를 다루고 있지 못한 점도 한계라 할 수 있다.

참고문헌

- 1) 김소영 · 선보영 · 전미영 · 남지민 (2017). '가족친화 지역사회 조성' 정책 10년 평가와 과제. 한국여성정책연구원.
- 2) 김창석(1989). 대도시 집합주거단지의 근린주구 계획 기준에 관한 연구. 국토계획, 24(3), 135-151.
- 3) 김혜영 · 홍승아 · 이택면 · 선보영 · 진미정 · 홍

- 성만(2009).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 실태조사. 한국여성정책연구원.
- 4) 노신애 · 진미정(2013). 지역사회 범위에 대한 주관적 인식과 가족친화성 평가:서울시 거주 미취학 자녀 부모를 대상으로. 한국가족관계학회지, 18(3), 279-294.
- 5) 박주희(2010). 가족친화적 생활환경 요소가 유아녀 기혼남녀의 다중역할 수행의 효과에 미치는 영향:거주환경 만족도, 가족지원시설 만족도, 가족지원 프로그램 만족도, 양육 및 교육환경 만족도, 생활환경 정보의 접근성을 중심으로. 한국가정관리학회지, 28(5), 53-66.
- 6) 박희봉(2002). 사회자본이론의 논점과 연구경향. 고려대학교 정부학연구소, 정부학 연구, 8(1), 5-44.
- 7) 손태주 · 차성란(2019). 제주지역 사회적 돌봄 공동체 활성화 방안- 제주형 사회적 돌봄 공동체 사업을 중심으로. 제주: 제주특별자치도.
- 8) 유재언 · 진미정(2013). 보육서비스 인프라가 영유아 부모의 지역사회 가족친화성 인식에 미치는 영향- 서울시 25개구를 중심으로. 한국가정관리학회지, 31(3), 63-79.
- 9) 유현숙 · 광현근 · 배지연(2006). 여성의 동네 사회자본에 관한 연구. 지역연구, 22(2), 315-337.
- 10) 이송지 · 김혜장 · 이경란 · 광영선 · 정영화 (2009). 가족친화 마을만들기 모델 개발을 위한 연구. 보건복지가족부.
- 11) 이영범 · 배득중 · 이기주 · 오영균 · 주운현 · 한상일(2012).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 실태조사. 여성가족부.
- 12) 이화진(2016). 제주 정착주민 실태조사 및 지원 방안. 제주 여성가족연구원.
- 13) 장임숙 · 권진아(2015). 가족친화마을 모델 개발 및 적용을 위한 연구. 울산여성가족개발원.
- 14) 정가원 · 홍승아 · 김난주 · 김수진 · 성지혜 (2019). 가족친화 지역사회 환경 조성 정책 실효성 강화 방안 연구. 한국여성정책연구원.

- 15) 조막래·김한별(2015). 서울시 공동육아지원사업의 지속가능성 방안연구. 서울시 여성가족재단.
- 16) 진미정(2018). 가족정책 관점에서의 가족친화 지역사회 개념화. 한국가족복지학, 23(2), 337-361. 한국아동가족복지학회.
- 17) 차성란(2010). 가족친화마을만들기를 위한 모델 및 핵심요소. 한국가정관리학회지, 28(2), 63-76.
- 18) 천현숙(2004). 대도시 아파트 주거단지의 사회 자본. 한국사회학, 38(4), 215-247.
- 19) 최인희·홍승아·선보영·장명선(2016).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 정책 추진 강화 방안. 여성가족부.
- 20) 최인희·김은지·김영숙·송효진·선보영·최진희(2018). 제 4차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 실태조사. 여성가족부.
- 21) 홍승아·김혜영·류연규(2007). 가족친화적 사회환경 구축방안 연구 : 직장·지역사회의 모형 개발을 중심으로. 한국여성정책연구원.
- 22) Coleman, James S. (1988). "Social Capital in the Creation of Human Capital". American Journal of Sociology 94(supplement), 95-120.
- 23) Putnam, Robert D. (1993a). Making Democracy Work: Civic Traditions in Modern Italy.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 24) Putnam, Robert D. (1993b). "The Prosperous Community: Social Capital and Public Life". American Prospects 4(13), 35-42.
- 25) 국립국어원표준대사전 <https://stdict.korean.go.kr/main/main.do>.

- 투 고 일 : 2020년 06월 15일
- 심 사 일 : 2020년 07월 01일
- 게재 확정일 : 2020년 07월 28일